문화특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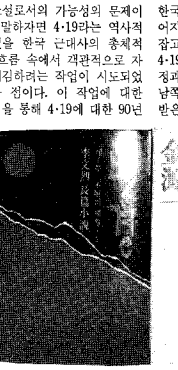
4·19의 소설적 형상화와 역사소설로서의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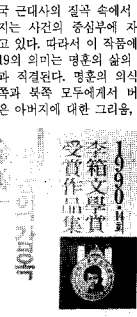
'마음의 감옥' 탈출구 모색

Ⅰ. 초라한 문학적 형상화

4·19라는 역사적 사건이 우리 문학에 끼친 영향은 크게 두가지 관점에서 파악될 수 있다. 그 하나는 4·19라는 빛의 강렬함과 관련된다. 과행적인 한국 현대사의 과정에 있어서 4·19의 빛은 '해방아닌 해방'과 한국전쟁이 가져온 허부주의를 극복케 한 것이다. 그러나 이 빛의 현현은 너무도 짧은 것이었고, 또 다른 암흑이 그 빛의 광장을 뒤덮게 된다. 어둠 속의 절망이 김수영의 몫이라면, 어둠 속에서 또 다른 희망을 찾고자 하는 것이 신동엽의 몫일 것이다. 4·19이후 우리 문학사는 이 양자의 변형태와 자라바꿈의 진폭 속에 들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다른 관점은 4·19를 직접적인 작품소재로 취급한 때인데, 이 경우 4·19의 문학적 의의는 아주 미미한 것이 되고 만다. 시의 경우, 4·19는 행사시나 기념시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재홍, '4·19의 시적 수용과 문제점', 한국문학, 85.4 참조). 소설의 경우, 그 형상화의 수준은 더욱 초라하다. 60~70년대의 몇 안되는 작품들 대부분이 현장의 증언문학이라 할 수 있는 현장소설 내지 상황소설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80년대 초반에 들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80년대 중반 이후 4·19의 소설적 형상화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단초를 드러내는 바 그것은 다름 아닌 장편 역사소설로서의 가능성의 문제이다. 말하자면 4·19라는 역사적 사건을 한국 근대사의 총체적인 흐름 속에서 객관적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작업이 시도되었다는 점이다. 이 작업에 대한 점검을 통해 4·19에 대한 90년대 소설이 나아갈 자리를 설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Ⅱ. 역사의 주관화와 추상화

미완성의 대작 '변경'은 앞의 작품이 갖는 결함을 어느 정도 극복하여 4·19를 전후한 상황을 단순한 보고차원에서가 아니라 소설의 내적 구성원리로 형상화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 역시 역사의 주관화, 추상화로 인해 4·19를 그 객관적 입장에서 총체적으로 묘사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영웅시대'의 후편이라 할 수 있는 이 작품(1부에만 한정)의 중심인물은 장남 이병훈이다. 그는 전쟁 직후부터 4·19와 5·16으로 어어지는 한국 근대사의 질곡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의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 4·19의 의미는 명훈의 삶의 과정과 직결된다. 명훈의 의식은 남쪽과 북쪽 모두에게서 버림받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그 개체일 뿐, 다른 어떤 의미도 지니지 않는다. 이러한 역사의 주관화는 당시 지도급 대학생인 황형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져 4·19 혁명 자체에 대한 부정으로 확산된다. 황형의 행위는 한국적 현실을 무시하고 단순히 서구의 자유민주주의 개념에 몰들은 얼치기 이상주의자의 행위이며, 나아가 혁명을 빌미로 삼아 자신의 출세의욕을 채울려는 것일 뿐이다. 이러한 비판은 한국적 현실에서의 혁명 불가능론으로 이어진다. 민중의식의 미성숙, 외세에 의한 분단과 그 외세의 변경인 한국, 이러한 상황에서 혁명은 불가능하다.

김원일의 중편 "마음의 감옥"은 지금까지 4·19를 형상화한 작품중에서 최고의 수준에 도달해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4·19세대의 자기반성을 통한 그 정신의 계승을 차분히, 그리고 아주 밀도있게 형상화하고 있다.

이작품은 세계의 외미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번째는 70년대 이후 노동운동가이자 빈민운동가로 활동하면서, 어떤 교조적인 이념이나 지식인의 봉사정신이 아닌 '사랑의 실천'을 온 몸으로 행한 박현구의 삶과 죽음이다. 두번째는 4·19세대로 그날 독재타도를 외친 대학생이자 80년대 해직기자이고, 지금은 잡지를 경영하는 '회색 중산층 지식인'인 형 박용구의 삶이다.

이 두 구조를 포용하는 세번째 의미층이 한국전쟁과 관련된 어머니의 삶이다. 한국전쟁의 비극—4·19—80년대 민중운동이 하나의 공간, 곧 소련의 개혁정책이 벌어지는 세계사적 현실, 그에 발해 양심수로 북역 등 간암이 걸린 현구를 감정유치한 병실, 그 상징적인 공간으로 압축된다. 그 공간에서 동생 현구의 죽음을 통해, 빈민운동에 뛰어든 아들과 어머니의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또 일상성에 함몰되어 있던 4·19세대인 형의 정신적 자각이 제시된다. 현구의 죽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가져다준 '마음의 감옥'을 감동력있게 랩천 이 작품은 비록 총체성 획득이라는 장편 역사소설의 범주에 들지는 않지만, 그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의 대상이 된다.

김원일이 우리에게 던져준 '마음의 감옥'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물음은 4·19의 현재적 의의에 대한 물음과 직결되는 바, 그것은 김수영적인 절망이 아닌 신동엽적인 믿음일 것이다. '동학의 곰나루 한성', 그리고 '한라와 백두'가 만나는 지점, 이른바 민중적 민족주의적인 신동엽의 '알맹이론'이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할 4·19의 의미일 것이다.

Ⅲ. 절망이 아닌 믿음

앞맹이에 대한 탐구를 통해 우리는 4·19의 역사소설로서의 가능태를 현실태로 바꿀 수 있는 열쇠를 찾을 수 있다. 그 열쇠는 역사의 총체성 파악의 시각과 거리감의 확보에 달려 있다. 역사 장물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하다. 표면의 단초적인 물거품 현상들에 주목할 수도 있고, 반면 그 심연을 관통하는 본질에 주목할 수도 있다. 총체성 파악을 위해 필요한 관점은 후자이다. 이 관점은 객관적 거리감, 곧 역사전개과정에 있어서 하나의 사건과 관련된 본질적인 측면이 하나의 매듭을 짓는 지점과 연결되어야 한다. 이 두가지가 확보될 때, 역사에 대한 총체성 파악은 가능하며, 지난 역사의 현사건에 대한 정당한 자리매김이 과학성을 담지하게 될 것이다.

4·19를 그 본질적인 측면에서 볼때, 그것은 우리의 왜곡된 현대사의 흐름을 정상적으로 되돌려 놓으려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 중의 하나이다. 일제강점기에서부터 비롯된 사회경제구조의 모순, 이에 기생한 지배체제의 모순, 이 양 모순이 그 극점에 도달한 자리, 여기에 맞물려 있는 학생 지식인 민중의 자각된 의식이 변혁의지와 행동으로 폭발한 자리, 그것이 4·19이다. '조직화의 미비'나 '자연발생적'이라는 평가는 실상 물적 토대와 존재의식간의 긴장감의 문제로 연결되어야 4·19에 대한 올바른 관단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 관점에 설 때, 동학의 함성과 4·19, 그리고 '80년대의 광주'로 상징되는 모든 노동, 빈민운동들은 4·19가 추구되는 본질적 측면에 맞닿아 있는 한 뿌리가 될 것이다.

이들 뿌리들은 살아숨쉬는 장대한 역사소설, 단순히 과거지사만을 그리는 역사소설이 아닌, 삶에 대한 역사화된 태도, 곧 과거를 소생시키되, 과거를 우리에게 친밀하게 만들며 그것의 참된 리얼리티를 경험하게끔 만드는 역사소설, 그것이 90년대가 맡은 4·19의 소설적 형상화의 과제이며, 그 등장을 우리는 기대해 보아도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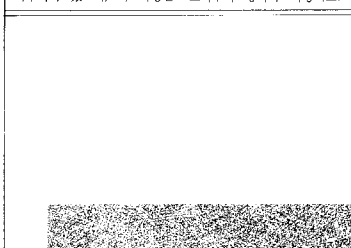
문 홍 술
〈문학평론가〉

동학과 4·19, 광주는 같은 뿌리

역사의 주관화…혁명 부정으로 확산

□문화단신

극단 현장 '심봉사…' 공연
포스트모던 대중문화 그려



극단 '현장'은 "심봉사 코끼리를 보다"(연출 박인배)를 무대에 올린다.

"심봉사…"는 '청이를 떠나보내고' 등 모두 일곱마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마당은 고전해석, 세태풍자, 오늘날의 인풍 등 3개의 거리로 구성된다.

이번 공연은 판소리에서 랩뮤직, 발췌에서 엉거주춤까지 보여주며 창작극 사상최초로 판소리 합장을 시도한다. 포스트모던한 대중문화속에서 가치관의 혼란을 겪는 현대인의 모습을 그린 이 작품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아를 발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간:4월 27일~5월 16일
장소:예술극장 한마당
문의:743-1266, 762-7320

임권택 감독 '서편제' 인간의 삶 서정적 묘사

판소리의 정서를 잘 담아낸 이청준씨의 소설 '서편제'가 영화로 만들어졌다.

한국인의 정체성과 한국문화의 본질을 집요하게 탐구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임권택 감독이 판소리라는 우리 고유의 음악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

오늘날 서구음악에 밀려 외면하고 있는 판소리가 문화사속에서 차지해 온 위상의 변화를 추적하는 이 영화는 새로운 경험을 관객에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

(태흥영화 제작·배급)

연재소설

水菊 필 하루 〈6〉

글:김도형〈국문·4〉 그림:김진우〈미교·3〉

이렇게 허술할 정도면 PX도 무사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했다. 답배 한 대를 느긋하게 피우고는, 타자기를 들고 정비공장으로 갔다. 고장 난 부분은 없었지만 자판이 뻑뻑했다. 2월식 사무용 타자기는 각 근무대와 참모부서를 돌틀어 단 세 대 밖에 없는 귀한 보급품이었다. 지원통제과라는 주무 부서의 배경으로 우선 보급받는 것이었다. 나머지 부서의 타자기는 심년도 더된 4월식 타자기가 대부분이었다.

수리는 간단했다. 자판을 덮고 있는 틀을 벗겨 내고 여기저기 기름칠을 하는 게 전부였다. 사무실로 돌아오는데, 사무실 입구에 PX 관리병이 서 있었다. 다리가 휘청했다. PX 조사는 하필 정작과장이 나왔다. 업무처리가 깐깐하기로 소문 난 참모였다. PX에 닥치자마자 진얼대부터 뛰지더니, 책 보따리를 밥겨 놓고 간 사병의 관등성명을 확인하고는, 곧장 정작과로 향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단기병 휴게실에 망연자실 앉아 있었다. 파문이 어디까지 번져나갈지, 어떤 처벌이 내릴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었다. 최악의 경우 보안대까지 각오해야 했다. 벽색 깔이 온통 하얗다는 보안대 자하실을 모르는 부대원은 아무도 없었다. 그곳에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했다. 분명한 것은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담당 간부들만 알고 비밀리에 조사가 진행된 것이 그 증거였다.

유일병을 찾아 가기로 했다. 그다도 만나야 일이 어떻게 될 지 조금이라도 알 수 있을 듯했다.

"초심하지. 사병부에서 자리비우 내려와 다는데…"

다 죽어 가는 목소리로 전해 주던 나에게 근심 어린 눈길로 쏘아 보는 것.

"지금 과장이 나를 주기 위해 들에 잡으니까. 나와 의논 않게."

그리고는 보충대에서 기결을 데리러 부라니까 했다. 사병 전에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 간부들 선에서 어떻게 마무리 지는 게 나을 성싶다는 것이었다.

유일병의 말이 일리가 있다 싶어, 사무실로 돌아와 보충관에게 자초지종을 말해 주었다. 이야기를 다 들은 보충관이 얼굴은 심하게 일그러졌다. 아무리 대수는 없이 일 배연가만 날 일이었다.

손목 시계를 [illegible] 보더니 [illegible] 다. 벌스럽게 [illegible] 보충관은 [illegible] 보주 대답이 없이 일어나 [illegible] 이 바짝 탔다. 전화벨이 시끄럽게 울렸다.

"대관절 그게 무슨 이야깁니까. 제가 죽을 뻬내오다니요. 저는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보좌관은 불쾌한 표정으로 목소리를 높혔다.

"야, 박일병 이게 무슨 소리야. 찍어둔 책이 몇 권 없어졌다는데."

토끼눈이 되어 보좌관을 쳐다 볼 뿐, 할 말이 없었다.

식사 집합 시간이 되었지만 잘 수 없었다. 한가하게 밥 먹고 있을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모두들 퇴근하고 텅 비어 있는 사무실에 오두카니 혼자 앉아 있었다. 보좌관만 일직사령 완장을 차고 상황실로 쓰는 정작과장실에 내려가 있었다. 차근차근 일의 앞뒤를 되짚어 보았다.

누가 그랬을까 하는 문제가 무엇보다 궁금했지만, 일단 쉬운 문제부터 하나하나 풀기로 했다. 책을 다시 찾을 수 없다면 나에게 유리할까 불리할까? 불리할 이유는 없었다. 무엇보다 증거가 인멸되었으니까.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나를 궁지에서 구해 주기 위하여…. 그렇지 않고서야 후환이 두려워서라도 그런 위험한 일을 할 까닭이 없지 않은가. 자물쇠는 멀쩡하고, 책은 없어졌고, 열쇠는 정작과장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고, 결국 자물쇠를 연 수는 방법은?

비몬 보관용 캐비넷 위를 더듬거렸다. 열쇠 하나가 손에 잡혔다. 보통 열쇠 보다는 길이가 길고 양쪽으로 튀어 나온 날의 모양과 두께도 가지각색이었다. 웬만한 자물쇠는 손쉽게 딸 수 있는 만능 열쇠였다. 열쇠는 군수과 박일병한테서 얻은 것이었다. 박일병은 잡다한 물건을 모으기를 좋아 했고 몇 개씩 되는 물건은 내무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곤 했다. 하지만 박일병이야 아침에 휴가를 떠났고…. 그렇다면 그렇게 대담한 일을 벌일 만한 사람은 누가 있을까. 간부들이 그랬을 리는 없고…. 캐비넷 가장 가까이 있는 현역사병은 유일병, 그러나 유일병이 만능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는 확신이 없고 무엇보다 그 주변머리 없는 사람이 어떻게 위험천만한 일을…. 그렇다고 다른 사람은 없지 않은가. 유일병. 정말 그일까?

일직 부관의 전화를 받고 상황실로 내려 갔을 때 보좌관은 소파에 몸을 파묻은 채 비디오를 보고 있었다. 졸단들이 유탄발사와 M16소총으로 치열한 총격전을 벌이는 장면이었다.

"[illegible] 내려가서 알고 있거서 대기해."

[illegible] 기분이 좋지를 못한 것 같았다. 보좌관은 표정일이 [illegible] 기분이 [illegible]

"[illegible] 수리 [illegible] 비는 노릇이었다.

"왜 [illegible]"

대답은 없고 [illegible] 들렸다.

"[illegible] 그는 [illegible] 했으니까 걱정 말아."

텔레비전 화면에서 [illegible] 보좌관은 길게 기지개를 폈다. 화면은 [illegible] 드라마로 바뀌었다. [illegible] 그는 [illegible] 있었다.

"[illegible] 선에서 [illegible] 부대 보고하기로 했어. 그러지 [illegible] 그 고참 병장 [illegible] 번 두둑하더니, 유일병보다는 [illegible] 그 놈이 범인이야. 전년 [illegible] 한번 [illegible] 잡해주던데."

젊은 만큼을 [illegible] 있다. 딱벌라한 키, 떠드렁이, 동똥한 코의 무쪽 같은 사람이 눈에 선하게 보였다. 아무런 대가 없이 남을 위해 위험천만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게산속 밝지 않은 주변머리 없는 자가 적당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내무반으로 내려오는 발길은 가볍지 않았다. 또 다른 걱정거리가 가슴을 먹먹하게 했다. 정작과 사병들이 범인을 모를 리 없었다. 책의 행방을 놓고 정작과장이 정작과 사병들을 족친 것은 당연했고, 과(果)선임 사병인 유일병이 단단히 곤욕을 치뤘다고 보좌관이 일러 주었다.

내무반에서는 신나게 입방아를 찧고 있었다.

"말도 마라. 보안대 지하실 가서 삼십 분만 족치면 불게 돼 있다고 고함고함 지르는데. 듣는 내가 정신이 아찔하더라."

〈다음호에 계속〉

제6회 엘지애드 대학생광고대상

Total Marketing Communication Service LGAd 주식회사 엘지애드

1. 응모자격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 (석사과정)

2. 응모부문
가. 광고문 (택일)
●과제 : ① 신세대에 어울리는 광고의 대중두화적 형향
②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소비자 중동강화에 대응 광고전략
③ 외국브랜드의 국내시장 진출에 따른 대응 시세한구
④ 패션 브랜드의 아미지 정착을 위한 마케팅전략
⑤ 이동용통 광고의 현황 및 개선방향
⑥ 유통시장 개방에 대응하는 세일즈 프로모션 방향
●과제의 범위 이내에서 응모자생로 구체적인 부제 (副題) 선정 가능
●분량 : 200자 원고지 30매 내외 (워굴명서 포함)에 의한 광고지의 사용을 금하며, Word Processor 사용 가능)
나. 광고작품 (택일)
●과제 : 금성사/휘닉스아 마니스타 금성사/비디오카세라 「하이텔」 금성통신/테크폰 노동작유동/통장만두, 라키/고일도 수과하나 라키/드림 아리스테 에고크아이/두레로 라이크로 /이코롤시 랜드세인/이에스트로 브랜마노/브랜마노 사조산업/기업PR, 삼나스포츠/제이넥스 삼원리조텐기/제스포 사물우유/요맨라이 엘지신용카드/엘지그린카드, 오아센트/사단 유원양행/생위전 정식품/빼지밥 중외제약/뽀뚜루라그랑/뽀뚜란 푸라일보배화장품/일모니스, 한국관광공사/관광객 유치 한미약품/에다마비타, 헌트/헌트
●응모 및 규격
-TV 광고 : 30초용 TV CF스토리보드 (당사 소정양식 사용 10Cm 이상 칼라)
-라디오광고 : 30초용 라디오광고 녹음테이프(카세트테이프로 제출 앤트 불부)
-신문광고 : 5단 × 37cm 또는 8단 × 37cm (흑백 또는 칼라)

3. 응모마감 ●1993년 7월 31일 단, 우송시에는 마감일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4. 작품제출처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275번지 라키금빌 마포빌딩 15층 (주) 엘지애드 PR국 PR팀 (TEL. 705-2910~3)

5. 심 사
가. 심사위원은 학계 및 광고계를 망라한 사계의 권위자로 위촉
나. 전체 응모작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예심통과 작품을 대상으로 본심 실시

6. 입상자 발표 ●1993년 8월 입상자에게 개별 통지 사보 "엘지애드" 1993년 9월호에 발표

7. 시 상 가. 광고분야 ●대 상 1 편 : 상장 트로피 및 상금 150만원
●우수상 1 편 : 상장 트로피 및 상금 100만원
●가 작 3 편 : 상장 트로피 및 상금 50만원
●입 선 약간수 : 상장 및 기념품
나. 광고작품 ●대 상 1 점 : 상장 트로피 및 상금 150만원
●우수상 (TV 광고부문) 1 점 : 상장 트로피 및 상금 100만원
●우수상 (라디오광고부문) 1 점 : 상장 트로피 및 상금 100만원
●우수상 (신문광고부문) 1 점 : 상장 트로피 및 상금 100만원
●가 작 (TV 광고부문) 2 점 : 상장 트로피 및 상금 50만원
●가 작 (라디오광고부문) 2 점 : 상장 트로피 및 상금 50만원
●가 작 (신문광고부문) 2 점 : 상장 트로피 및 상금 50만원
●입 선 약간수 : 상장 및 기념품

8. 기 타
●입상자가 당시에 입사문 희망하는 경우 사원선형 및 면접에서의 특전을 부여하며, 입상자중 팀당 1명에 한해 1994년 겨울방학중 1 개월간 당사 인턴사원의 자격을 부여함
●응모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됨니다
●팀 단위로 응모하는 경우 5명 이하로 구성되어야 하며 응모시 출품신청서 (당사 소정양식) 작성해야 합니다
●논문부문은 원고지 5매 내외의 논문요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